



일본 사죄 끝내 못받고

광주·전남 마지막 위안부 피해자 광예남 할머니 별세

광주·전남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광예남 할머니가 끝내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3·1운동 100주년을 꼭 하루 남기고 나비가 돼 하늘로 날아갔다.

3일 위안부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 '광주나비' 등에 따르면 광 할머니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노환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25년 담양에서 2남4녀 중 3녀로 태어난 광 할머니는 1944년 봄 고향마을 뒷산에서 도래들과 나물을 캐던 중 일본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돼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끌려갔다.

할머니는 광복이 되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방 24개로 된 2층 건물에서 끔찍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 하루에도 두 세차례씩 관리인은 위안부들이 제대로

1944년 담양 뒷산서 나물 캐다 일본군에 끌려 중국형 폐암·치매 투병 끝 94세 타계... 생존자 22명으로 줄어

있는지 삼엄하게 감시했고, 일주일에 한번씩 목욕탕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1945년 봄에 그리던 해방이 되고 할머니는 풀려났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중국에 정착해 살면서도 국적을 바꾸지 않는 등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

광 할머니는 MBC 프로그램 '느낌표'와 한국정신대연구소의 도움으로 2004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현재, 자매는 만났지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고향집은 허물어진 지 오래돼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세포암·폐암 4기 진단과 함께 치매까지 찾아왔다. 할머니는 "생전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낯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 할머니의 빈소는 전주병원 VIP실 별관 특실이며, 발인은 4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전남안시 국립묘지의 동산에 마련됐다. 광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2명 뿐이다.

고 지역시민단체들도 관련 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녀가 된 해당 여목사는 광 할머니의 상주가 됐다. '광주나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할머니는 폐암 말기임에도 알뜰달뜰한 팔씨에 웃음 짓고, 기분 좋은 날에는 함께 노래도 부르며 온 힘을 다해 살아내셨다'며 "생전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낯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지역시민단체들도 관련 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녀가 된 해당 여목사는 광 할머니의 상주가 됐다.

'광주나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할머니는 폐암 말기임에도 알뜰달뜰한 팔씨에 웃음 짓고, 기분 좋은 날에는 함께 노래도 부르며 온 힘을 다해 살아내셨다'며 "생전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낯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 할머니의 빈소는 전주병원 VIP실 별관 특실이며, 발인은 4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전남안시 국립묘지의 동산에 마련됐다. 광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2명 뿐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기로

"비핵화 노력 뒷받침"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이란 이름의 연합 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KR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명칭으로 바꾼 가운데,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주말 제외) 7일간 시행하고, FE훈련은 2007년 명칭을 변경해 2008년 처음 시행한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KR은 한글 '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그간 KR 연습과 FE 훈련 이름으로 시행해오던 이들 연합훈련은 올해부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R 연습은 2007년 명칭을 변경해 2008년 처음 시행한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KR은 한글 '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독수리연습은 1961년 '독수리훈련'으로 시작됐으나 1975년 'Foal Eagle'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름을 바꿔 시행한지

44년 만에 이 훈련 명칭도 없어졌다. 이 훈련은 독수리훈련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연중 대대급 이하의 조정된 야외기동훈련으로 진행된다.

군외 한 관계자는 "연중 조정된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사실상 결정됐으나, 이번 양국 국방장관간 통화로 최종 결정됐다.

이전 결정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사실상 결정됐으나, 이번 양국 국방장관간 통화로 최종 결정됐다.

연습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성성 동당역에 도착해 환송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열차 中내륙 관통 최단 노선 북상중

베이징 안 들를 듯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3일 철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 전용 열차는 전남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해 이날 오후 삼엄한 통제 속에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지나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중국 경제 시찰을 위해 광저우(廣州)로 간다는 말도 있었지만 전용 열차는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갈 때와 같은 노선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공사 중단 통지문을 통해 스자좡(石家莊), 톈진(天津), 산해관으로 이어지는 철로에 대해 지난 2일 밤부터 4일 오후 1시까지 모든 주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선은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갈 때 이용했던 중국 철도 노선과 일치한다. 이 노선을 따라가면 베이징(北京)은 거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귀국 길에도 같은 노선으로 3500km가 넘는 철길을 60시간가량 달리며 중국 내륙을 또다시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훈처 "일부 보훈단체 처장 파면 요구는 개혁에 대한 반발"

일부 보훈단체의 피우진 보훈처장 파면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보훈처는 지난 2일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4곳이 벌이고 있는 '보훈처장 파면 요구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서명 작업의 배경에는 수의사업 비리와 연관된 일부 단체, 일부 임원들의 보훈처 개혁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는 "그럼에도 투명성 강화와 수익금의 회원복지 사용이라는 개혁사업은 중단될 수 없다"며 "동시에 국가유공

자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장 파면을 요구하는 일부 보훈단체들은 서명자가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파면 요구 탄원서를 조만간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상이군경회에 대해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명목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수익금 중 회원복지비 지출 비중이 낮은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이후 가뜰이나 좋지 않았던 보훈처와 보훈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선관위, 유튜브 정치인 모금 '제동'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를 활용한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내용은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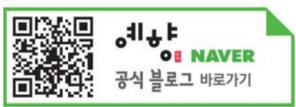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조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브가 우수족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애플리케이션을 꾸리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팍팍TV의 '팍팍', 팟방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투자자모집
엔피엘/급매물등 모든부동산
(주)오천/최선규.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료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2박스 구매하신 분께 안달분 더 드립니다
상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안바이오테크놀로지
010-3598-708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명의의료행사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월드에서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의의료행사의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의의료행사의"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